

## 회전근 개 파열 봉합술 후 유합의 추이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손동욱 · 전재명

### 목 적

회전근 개 파열의 봉합술 이후 유합 되는 상황과 임상 양상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2004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회전근 개 파열로 수술적 봉합술을 시행받은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4예에서는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소규모 절개를 이용한 봉합술을 시행하고 나머지 23예에서는 개방적 견봉 성형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파열의 크기는 부분층 파열이 3예, 소파열이 9예, 중파열이 10예, 대파열이 12예, 광범위파열이 13예였다. 모든 환자는 1년이상 추시 하였으며 MRI촬영을 하여 재파열 유무 및 파열 정도를 확인 하였고 임상 결과는 ASES score와 constant score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근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술 전후의 근력을 비교하였다.

### 결 과

다시 촬영한 MRI상 부분층 파열, 소파열 및 중파열에는 재파열이 9.1%에서 보였으나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서는 48%에서 재파열이 보였다. 부분층 파열, 소파열 및 중파열에서 재파열이 있는 2예의 수술전 ASES는 57.5, constant score는 63.0점이고 수술후 ASES는 100점, constant score는 85.5점이며 재파열이 없는 20예의 수술전 ASES는 55.6, constant score는 50.1점이고 수술후 ASES는 90.0점, constant score는 80.3점이었다.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서 재파열이 있는 12예의 수술전 ASES는 58.6, constant score는 53.3이고 수술후 ASES는 84.2점, constant score는 73.1점이며 재파열이 없는 13예의 수술전 ASES는 55.4, constant score는 43.3 점이고 수술후 ASES는 90.3점, constant score는 81.9점이었다. 부분층파열, 소파열 및 중파열에서는 수술후 평균 근력 증가율은 103.0%였으며 술후 견축에 대한 백분율은 105.9%였다.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서는 수술후 평균 근력 증가율은 106.6%였으며 술후 견축에 대한 백분율은 85.0%였다.

### 결 론

회전 근개 파열 크기에 따라서 재파열의 빈도가 높아지며 임상 증상은 재파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호전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파열 및 광범위파열이 있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재파열의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높으며 유합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